◈며느리 권씨 열전 15-3

‘억울한 人生은 있어도 억울한 역사는 없다’

남이南怡장군의 부인 권씨 (추밀공파 19世, 좌의정 권람權擥의 딸)

◇**민간신앙의 神 남이장군** 무속에서는 이승의 한을 품은 사람을 저승으로 안착시켜 이승의 인간들에게 해를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데, 매우 휴머니틱한 사고 방식이다. 남이 장군 신앙은, 원혼이 강한 귀신을 반드시 모셔서 위해야만 탈이 나지 않는다는 소극적 금기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한편 생전에 위엄 있는 장군이었다는 점에서 잡귀를 쫓을 수 있는 주력(呪力)이 있다고 믿기에 모시는 것이기도 하다. ‘햇볕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전설’이 된다. 그는 민중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이니 소위 브랜드파워 ‘갑’인 것이다.

축령산 정상 남이바위, 남양주시와 가평군 경계에 있는 높이 879m, 이성계가 제를 올리고 사냥을 해서 멧돼지 다섯 마리를 잡아서 오득산, 남이가 제를 지내고 심신을 수련했다고 해서 축령산,용이 승천 했다고 비룡산이라고도 부른다.

사진 산바리기 블로거

◇**남양주 축령산 전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과 가평군 상면 경계에 있는 축령산(祝靈山,886m), 이름의 유래는 ‘남이’와 관련된 것이다. 축령산에는 ‘남이’가 어릴 적 무예를 닦았다는 ‘남이바위’가 있고 정상에서 동쪽 방향으로 경기도 가평의 남이섬과 더불어 남이 장군 유래설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로하고자 남이와 관련이 있는 이 산을 축령산(祝靈山,영혼을 위해 기도)으로 이름 지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남이 장군 유래설이 더 친근감이 간다.

의령남씨 비. 대전 뿌리 공원. 사진 밥상뉴스

의령 남씨

경상남도 의령군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 남민(南敏)의 후손으로 고려 때 대장군을 지낸 남진용(南鎭勇)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중 차남 남군보(南君甫)는 고려 충렬왕 때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냈으며, 이후 의령 남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장남 남홍보(南洪甫)는 영양 남씨의 중시조, 3남 남광보(南匡甫)는 고성 남씨(固城南氏)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조선 개국에 큰 공을 세워 개국공신에 녹훈되면서부터 중앙 정계의 중추에 진출하게 되었고 조선시대 정승 6명과 대제학 6명, 판서 24명을 배출했다 종묘배향공신 4명을 배출하였고 남이장군과 생육신 남효온,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 등도 의령 남씨이다.

한편 남을번의 동생인 남을진(南乙珍)은 고려 말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를 지내다가 조선이 개국하자 양주의 남선굴(南仙窟)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인구는 17만명 정도이다.

권씨부인의 가계

워낙 유명하니 따질 것도 없고. 권근으로부터 시작하는 조선왕조 시대 추밀공파의 전성시기에 나타난 또 다른 기인의 한사람이다. 권람의 인맥과 인연은 대단하다.

19권씨(병조판서, 南怡夫人)-18남(좌의정, 擥)-17제(우찬성, 踶)-16근(대제학, 近)-15희(검교좌정승, 僖)-14고(검교시중, 皐)-13보(당대구봉군, 영도첨의사사溥)-12단(찬성사, 胆)-11위(문하평정사, 韙)-10수평(추밀공파조, 守平)

문무를 겸전했지만 그의 부친 권제(權踶,1387-1445)의 성깔이 대단하여 첩실과 딸을 죽이는 일이 있을 때, 그가 울면서 말린 적도 있으니 그 뒤로 방황하게 된 것 같다.

그러나 그는 문과 장원 급제에 활의 명인이었다. 다만, 축재문제로 비난 받고, 계유정난에 인맥관계로 인해 연계 되어 1등급이 된 것은 매우 유감일 수도 있다.

딸이 여덟명이고 다 유명인들의 부인이 되니 그 인맥의 얽힘도 대단하다. 사육신으로 1977년에 가묘가 만들어진 김문기의 맏며느리 권영금(權英今)은 5촌 당조카, 권람의 사촌형 권담의 딸이기도 한데. 자신의 딸의 시아버지가 김문기이기도하니 그녀를 종으로 하사 받은 형식으로 하여 구제한 일도 있다.

이제 남이의 첫부인이 권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남이와 권람의 이야기로 채워질 수 밖에 없고, 그녀의 묘소 조차 알길이 없지만, 그녀로 말미암아 민간의 전설 남이장군에 대한 것과 그 역사적 교훈을 되새긴다면 그것만으로도 권문의 며느리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제 화성군의 남이장군묘, 춘천의 남이섬, 남양주의 축령산, 영양의 선바위. 서울 용산의 남이사당. 부군당등을 지날때 예사롭게 지나치지 말고 나름 그녀와 그의 부군 남이의 혼령을 위로 해보는 여유를 가지고 그 역사적 의미를 음미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가져온 빌미가 된 워낙 유명한 ‘백두산석 마도진’으로 시작하는 ‘남이장군 출정가(南怡將軍 北征歌)’, 그 시의 운(韻)과 끝자인 盡, 無,國,夫을 빌어서 졸작이지만 그의 영혼을 위로 하여본다.

南怡 祝靈歌 (남이 축령가)

남이장군의 영혼을 위로하며

古隱立巖 磨灑盡 (고은입암 마쇄진)
영양 선바위가 남이포 물길에 갈아지고 씻겨 없어져도
磊雄嶼水 渴乾無 (뇌웅서수 갈건무)
남이섬의 돌무덤가를 흐르는 남한강의 물이 다 말라도
龍門祠事 永垂國 (용문사사 영수국)
용문, 사당의 제사 일은 나라에서 영원히 지낼 것이니
靈祝南怡 傑澔夫 (영축남이 걸호부)
축령산에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니 영웅에 호부로다

글 권오철 기자

권율 장군 표준영정봉안식 및 행주대첩제

권선홍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권율(權慄, 1537~ 1599) 장군의 구 영정은 월전 장우성(張遇聖) 화백이 그린 갑주본(甲冑本) 모습이었으나, 1998년 도난으로 인해 복사본으로 대체하여 봉안해왔다. 고양시는 2021년부터 표준영정 제작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를 최종 통과하고 현재 국가표준영정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장군의 가계를 보면, 고려 후기 안향의 수제자로 정승을 지낸 권보(權溥)가 9대조인데, 본인과 아들 다섯 그리고 사위 셋이 모두 봉군되어 ‘일가 9봉군(封君)’이라 칭하였다. 익제 이제현(李齊賢)도 사위였다. 여말선초의 유명한 학자로 조선 최초의 대제학을 지낸 양촌 권근(權近)과, 그 아들로 부자 대제학을 기록한 권제(權踶)가 6대조와 5대조이고, 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권철(權轍)이다.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풍모가 있었던 듯하다. 6세 때 어머니가 비단옷을 새로 지어주며 입으라 하니 입기 싫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묻자 "옷은 몸만 가리면 그만이지 뭐하러 남의 시선을 생각합니까?"라고 대답했는데, 아버지 권철은 이 얘기를 듣고 비범한 인물이 될 거라 기대했다고 한다.

명문가 출신에다가 나름대로 똑똑했지만 40세가 넘도록 관직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과거를 보든지 집안 이름을 써서 관직이라도 얻든지, 자네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텐가?"고 묻자 장군은 "옛날 태공망(太公望)은 나이 80에 현달해서 오히려 천하를 경영하여 백성을 구제했는데, 내 나이가 아직 태공망의 반밖에 안 되는데다 능력까지 미치지 못하니 어찌 출세가 늦은 걸 걱정하겠는가?"라 대답했다고 한다. 지인들과 어울려 전국을 여행하거나 지리를 연구하는 등 한량처럼 지냈다.

벼슬길에 뜻을 두게 된 이유는 아버지 권철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권철은 죽기 직전에 막내아들 권율을 빤히 쳐다보다가 "널 내가 낳았구나"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는데, 이 말에 깨달은 바가 있어 아버지 상을 치르고 금강산에 들어가 과거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선조 15년(1582) 식년시 문과에 병과 15위로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정9품)에 제수되었으니, 이 때 나이가 46세였다.

선조 25년(1592) 4월 14일 왜군의 부산진 침범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장군은 전라도 광주목사에 임명되어 바로 임지로 떠났다. 왜군이 한양에 당도한 것은 5월 2일이었다. 한양이 함락된 뒤 전라감사 이광(李洸)과 방어사 곽영(郭嶸)이 4만여 명의 근왕병을 모집할 때 장군은 곽영의 휘하에서 중위장(中衛將)이 되어 한양 수복을 위해 함께 북상했다. 이광이 수원과 용인 경내에 이르러 이곳에 진을 친 소규모의 적들을 공격하려 하자, 장군은 극력 반대하면서 자중책을 건의했다. 그러나 주장인 이광이 듣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취해 대패하고 선봉장 등 여러 장수들이 전사했다.

장군은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광주로 퇴각해 후사를 도모했다. 그해 7월 장군은 황진(黃進) 등과 금산 이치(梨峙)싸움에서 왜적을 대파시켜, 호남지역을 지켰다. 임란 때 조선이 최초로 승전을 거둔 곳이며, 장군은 그 공으로 전라감사에 승진하였다.

이어 함락된 한양의 수복을 위해 다시 북상하던 중, 그해 12월 수원 독산성(禿山城)에 진지를 구축하고 왜병 수만 명을 무찌르고 성을 지킴으로써 적의 진로를 차단했다.

이후 행주산성으로 진지를 옮겼다. 1593년 1월 벽제관(碧蹄館)전투에서 명나라 군대를 이긴 왜적이 승기를 몰아 행주산성(幸州山城)을 공격했는데, 그해 2월 12일이었다. 아침부터 불 뿜기 시작한 공방전은 저녁까지 계속되어, 적은 아홉 번 진격하였으나 아홉 번 모두 격퇴시켰다. 장군의 뛰어난 통솔력과 3천 명에 불과한 관군, 의병, 승병들의 사력을 다한 선전 끝에 대승을 거두었으니, 그 유명한 행주대첩이다. 장군은 행주대첩에서 "사나이는 의기만 생각할 뿐, 어찌 공명을 따지겠는가[男兒感意氣 功名誰復論]"라며 병사들을 격려했다고 하며, 그 공으로 전군을 지휘하는 도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장군 스스로는 행주대첩을 자신의 최고 전공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항복의 〈백사집〉에 따르면 "원래 웅치와 이치의 싸움이 더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싸워 이겨 호남이 보존될 수 있었네. 그러나 행주전투는 이미 적의 기세가 쇠한 상태였고 내가 전공이 있던 상태에서 이뤄진 전투니 이것이 내가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이지. 하지만 나는 행주싸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사람 일은 참 모를 일이네"라며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의례적인 겸양의 말로도 보이지만 장군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자신의 싸움은 웅치-이치전투였다는 소리다. 게다가 이치 전투에서 왜군 총지휘관은 임란에 참전한 적장 중 가장 뛰어나다는 명장 소조천융경(小早川隆景)으로, 2만 병력을 지휘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행주전투의 공적을 폄하할 수는 없는데, 장군은 3천의 조선군으로 3만이 넘는 왜군을 상대해야 했었다. 그 상황에서 10배에 달하는 적 병력을 거의 전멸 일보 직전까지 무찌르는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왜란이 끝나자 노환으로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이듬해인 선조 32년(1599) 7월에 별세하였다. 선조 37년(1604)에 이순신(李舜臣), 원균(元均)과 함께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에 책록되고 영의정부원군(領議政府院君)에 추증되었으며, 충장(忠莊)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헌종 7년(1841)에는 행주에 기공사(紀功祠)를 건립하여 그해 사액되었으며, 그곳에 향사되었다.

신흠(申欽)은 장군의 비명(碑銘)에서 "공은 키가 8척으로 체격이 크고 용모가 훌륭하며 엄중한 풍채를 지녔다. 행실은 바르고 성실하고 검소하였으며, 천성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해 집에는 물건이 오래 남아 있지 않았다. 일처리는 치밀하고 신중하였고, 거행하는 데는 필히 만전을 기하였다. 적을 맞아 진을 치고 대치하면서도 말은 가지런하면서 한가한 듯이 하였고, 몸을 일으켜 장군이 되어 다시 군영을 거느리되 몸소 사졸보다 앞에 섰다. 호령은 엄하고 분명하게 하되, 병사들을 가까이 하였고 공을 세울 수 있도록 도모하곤 하였다. 명나라 유격(遊擊) 사대수(査大受)가 찾아와 공을 보고 찬탄하며 ‘외국에도 또한 진정한 장수가 있었도다!’ 하였다. 경략 송응창(宋應昌)도 자문(咨文)을 보내 공을 칭찬하기를 ‘권(權) 포정사(布政司)는 가히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잡은 충신이요, 중흥의 명장이라 할 수 있다’면서 비단과 백금 등으로 포상하였다. 명나라 상서 석성(石星)이 우리나라 사신을 만나 공의 문안을 물으며 말하기를 ‘귀국에 만약 권(權)공 같은 사람이 여럿 있다면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하였다"라고 적었다. 신흠은 임진왜란 중 장군의 막하에서 종군하였기 때문에 그 인물됨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한 기록이라 하겠다.

장군의 무남독녀는 백사 이항복(李恒福)에게 출가하여 2남 1녀를 두었는데, 그 후손 중에 정승 여러 명과 대제학을 비롯하여 이회영 시영 형제 등 독립운동 가문을 배출하였다. 아들이 없는 장군은 평소에 "내가 죽으면 이 의정(이항복)이 내 묘지명을 써 줄 것이니 그것으로 족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후일 둘째 형의 아들 권익경(權益慶)을 양자로 들였다. 익경은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신하였는데, 이듬해 강화도를 점령한 청나라 병사에게 살해당하여, 뒤에 좌승지가 추증되고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행주대첩비는 선조 35년(1602)에 세운 것으로, 비문은 최립(崔岦)이 짓고 글씨는 한호(韓濩)가 썼으며 전액(篆額)은 김상용(金尚容)이 썼다. 뒷면의 비문은 사위인 이항복이 글을 짓고 김현성(金玄成)이 글씨를 썼다. 세월이 흐르며 마모가 심해지자 헌종 11년(1845)에 중건비를 세웠는데, 비문은 구비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비의 뒷면에 조인영(趙寅永)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비문을 짓고, 이유원(李裕元)이 글씨를 썼다. 한편 장군의 묘는 양주 장흥에 있다. 신도비(神道碑)는 기존의 신도비 비문이 마모되어 철종 12년(1861)에 새로 건립한 것으로, 신흠(申欽)이 짓고 이유원이 글씨와 전액(篆額)을 썼다.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은 백사의 후손으로, 장군의 외후손이다.

단편소설

마지막 선물

권순악

해마다 아카시아 꽃이 피면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 6월이면 뒷산에 아카시아 꽃이 가지가 휘도록 핀다. 주렁주렁 하얗게 핀 꽃을 바라보면 그 친구가 더욱 그리워진다. 친했던 친구라 마음 가누기가 힘들어진다. 친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이다.

사는 집의 거리가 멀어도 서로 번갈아 가며 집으로 놀러 가기도 하였다. 우리 집에서도 반겼고, 친구 집에서도 반겼다. 어머니께서는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마련하여 밥을 새로 지어서 주셨다. 많이 먹고 놀다 가라며 상머리에 앉으셔서 자상하게 반겨 주셨다.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친구가 입학하기 힘들었던 공주사범학교로 진학하고 나서 서로 길이 달랐다. 그래도 방학 때가 되면 반갑게 만나서 진로도 상의하고 인생을 말하기도 하였다. 졸업 후 친구는 고향에서 교편을 잡고 나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대학에 진학하였다. 그 후 그렇게 헤어져 생활하게 되었다. 잊었다가 만났다가 하면서 세월이 흘러갔다.

나이 들어서 동창회 때 만나면 둘만의 이야기가 길었다. 친구는 전년 후에 양분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귤은 부자간에도 속인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진짜 꿀을 일 년에 한 번씩 줄 테니 다른 글에서 사지 말라고 당부를 하였다. 진짜 글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대 측이 아니라는 진심을 알았다. 나는 속으로 귤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였다. 시세대로 계산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믿고 사는 것이니 시세보다 비싸게 계산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 친구가 빠르게 답을 주었다.

“내 우정이다. 꿀 값은 안 받는다.”

친구는 내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치 않다.”

돈을 앞세우는 내가 부끄러웠다.

“그냥 주고 싶은 거다.”

가짜 꿀의 우정이 아니라 진짜 꿀의 우정을 알았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이 삭막하다.

느린 듯 빠른 계 세월이다. 그동안 서로 소식 없이 생활에 바빴다. 녹음이 싱그러운 유월 어느 날이었다. 하늘이 파랗고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을 것 같은 날이었다. 모처럼 집에서 한가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택배가 왔다고 한다. 어디서, 누가? 택배가 올 곳이 없었다. 바삐 택배를 풀어 보았다. 그 친구였다. 예쁜 도자기 꿀단지였다. 그동안 까맣게 잊어버린 일이었다.

“어허, 이 친구가! 정말 꿀을 보냈네.”

허겁지겁 전화번호를 찾았다. 몇 번 번호를 눌렀다. 통화가 안 되었다. 아마 먼 산 속 깊은 곳에서 벌통을 관리하는가 보다. 친구로부터 처음 받는 진짜 꿀이었다. 꿀은 해마다 아카시아 꽃이 피고 나면 택배로 힘차게 달려왔다.

몇 년 동안 어김없이 친구는 꿀을 보내 주었다. 고마웠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아무런 답례도 못하였다. 염치없이 꿀맛은 달기만 하였다.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었다.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말기 암으로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췌장암 말기로 다른 장기에도 많이 전이되어 수술도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 치료를 단념하였다. 퇴원해서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여행이나 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오륙 개월의 시한부란다. 여러 병원을 찾았으나 같은 말이었다. 사형 선고다.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어느 노한의사가 권하였다고 한다. 깊은 산에 가서 몇 달 있어 보라고, 인생 마지막 길에 배우자가 있는 것은 남자에게 큰 행운이니 부부가 같이 벗하여 입산하기를 권하였다고 한다. 산에는 소나무 바람이 시원하고, 참나무, 편백나무, 잡목 바람이 좋다고 하였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골짜기에서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온 생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하늘도 다시 바라보고 구름도 다시 바라보면서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우면 기적도 있을지 모른다. 기적이 없더라도 살아온 삶의 무거웠던 짐과 미련을 버리니 떠날 때 마음이 가벼울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입산을 권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분당 막내아들 집에 있다고 한다. 몇몇 초등학교 동창들이 먼저 문병을 다녀왔다고 소식을 전해 주었다.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고 하였다. 잠깐 동안 겨우 만났다는 것이다. 아까운 친구 먼저 보내게 되었다고 한숨만 쉬었다.

며칠 후 시간을 내어 문병을 갔다. 전화를 하였으나 오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하였다. 초라한 몰골에 실망이 클 거란 것이다. 옛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였다.

허겁지겁 약속된 장소로 갔다. 어떻게 만나서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 건가. 문병도 어려운 일이었다. 친구 부부가 같이 나왔다. 전철 입구 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친구의 손을 잡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하네.”

친구는 눈이 퀭하고 몸이 몹시 야위었다. 키만 껑충 더 커 보였다. 얼마 후 친구는 담담해졌다.

“이 친구야!”

나는 목이 메었다.

“이게 웬일인가.”

“하늘의 뜻이지.”

오히려 친구가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누구나 가는 길 아닌가.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하더니 이젠 편해졌어. 며칠 후 집사람하고 산으로 바다로 여행이나 하고 오겠네. 하늘을 지붕 삼고 청산을 집 삼아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아주 먼 길을 떠나갈 생각이네. 부모라지만 자식들도 짐이 될 게 아닌가.”

“그래. 그렇게 하게. 가볍게 여행을 떠나게.”

이 말밖에 다른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친구의 손을 다시 꼭 쥐었다.

“내 소주 한잔 사 줄게. 저기로 가세.”

친구 부인이 저쪽 포장마차 집으로 가잔다.

친구가 술 한잔을 산다는 것이다.

“뭐 술을?”

“나는 못 마셔도 한잔 따라 주고 싶다.”

친구 부인도 그렇게 하자고 한다.

“술은 무슨 술!”

나는 어쩔 줄을 몰랐다.

“몇 달 후면 문상 올 게 아닌가. 그때는 내가 받아먹을게.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실컷 받아먹을게. 이 친구야.”

친구는 빙그레 웃고 있었다.

“이 친구가. 그런 말을.”

친구 부인도 쓰디쓴 웃음을 지으며 권한다.

“오늘은 내가 권하는 술을 마시게나. 오늘이 마지막 권하는 술잔이네”.

친구가 따라 주고, 내가 따라 마시고, 부인이 따라주는 눈물의 술잔이었다.

누가 위로하고 누가 문병을 왔는지 분간이 안 되었다.

헤어질 때 친구가 부인에게서 보따리를 받아 건네준다.

“이게 뭔가?”

“마지막 선물 꿀일세. 진작 보냈어야 될 것을.”

“뭐라구! ”

나는 어이가 없었다. 한참 후에 말하였다.

“줄 테면 내년에 주게.”

“내년에 나는 이 세상에 없잖은가.”

죽을 사람이 산 사람에게 주는 기막힌 마지막 선물이다.

한사코 내 손에 꿀 병을 건네주었다.

친구는 웃고 나는 꿀 병을 받고 울고 있었다.

친구는 저만치 가면서 손을 흔들었다.

부인도 허리를 굽히며 손을 흔들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아카시아 꽃은 하얗게 피었다.

해마다 뻐꾸기도 청산에서 서럽게 울고 있다.

권순악(saa9176@hanmail.net)

충남 서산 출생. 소설가, 시인, 수필가,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 한국창작문학 특별편집위원, 국제펜문학 한국수필가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월간한맥문학, 농민문학 자문위원, 저서 "달빛에 길을 묻고", "꽃길 따라 구름 따라' 외 다수, 옥조근정훈장, 한국문학인상, 흙의 문예상, 류승규문학상, 농민문학상, 세계문학상, 한맥문학상